

제주해안 이번엔 ‘파래’ 유입 골머리

조천·성산 등 동부지역 구멍갈파래 다량 번식 수은 상승시기 발생해 주민들 “모자반 제거도 힘든데 이번엔 파래가...” 자원활용방안 아직 없어



10일 오전 제주도 조천읍 함덕 해변에 구멍갈파래가 밀려와 미관을 해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연안에 중국발 썩새이모자반이 예년보다 대량 유입돼 한달 가까이 수거 전쟁을 치르다 최근 발생량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이번엔 구멍갈파래가 제주 동부 연안을 뒤덮기 시작했다.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 개장할 예정인데, 제때 수거되지 않을 경우 더위에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동부 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갈파래가 이상번식하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구좌읍 월정·하도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오조리 해안을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고 있다.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갈파래 공습은 수온이 상승하는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골칫거리지만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이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찾지 못해 수거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갈파래

의 이상번식에 양식업자와 전복의 배합사료로 활용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상용화되지는 못했다. 또 제주테크노파크가 갈파래의 효능 연구와 화장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거해 해양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거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갈파래는 성산읍 해안에서

대량 번식하는데 서귀포시 연안에서 수거한 양만 2017년 1750t, 2018년 2250t, 2019년 3870t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갈파래는 부패 속도가 빨라 구더기 등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를 풍기면서 수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김덕홍 제주시 조천읍장은 “해안에서 썩새이모자반 수거를 다 마친 후 갈파래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오 성산읍장은 “갈파래가 신양해수욕장과 오조리 백사장에 다량 번식하고 있는데, 악취 우려가 있어 며칠 전부터 트랙터와 포클레인으로 신양해수욕장의 갈파래를 먼저 수거하고 있다”며 “수거한 갈파래는 말린 후 퇴비로 활용하는 농가에 퇴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이 손을 보고도 외면할 겁니까?”

급식노동자 교육청에 적극 예방대책 주문

제주 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A씨에게 지난달 22일은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로 남았다. 학생들이 먹을 점심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절단되자마자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사고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음식물쓰레기 속에 뼈와 종이, 비닐 같은 이물질이 끼면서 감량기 배출구가 막혔는데, A씨가 기계 작동을 멈추고 15cm 길이의 막대기로 막힌 곳을 뚫는 과정에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손이 들어가 버

린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의 오른쪽 손가락 1개가 절단되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봉합된 손가락이 다시 붙을지, 으스러진 손가락을 쓸 수 있을지는 의료진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량기 사고는 지난해 5월과 10월, 12월에도 발생했다. 현재 이들 3명은 생계 때문에 다시 급식소에 출근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사고가 1년새 4차례나 발생하면서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보상’이 아닌 ‘예방’을 제주특별



사고를 당한 타지역 급식노동자 손 모습. 사진=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제공

자치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 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김은리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장은 “2018년 감량기 설치기 시작돼 현재는 도내 40여개 학교에 존재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방 의무가 있는 교육청은 뒷집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밥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가 늦어졌다. 6월 중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도, 돌봄 필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실시 1년 이달부터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 추진

한 의사·물리치료사 주 1회 방문

제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애인분야에 선정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6월부터는 보건과 의료를 연계한 서비스가 추진된다.

시는 2021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3억여원(국비와 도비 각 50%)이 투입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정책대상인 발달·뇌병변 장애인들이 시설입소보다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육구조사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형 모델 개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6월부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주한의사회(수석부회장 한정철)와 제주물리치료사협회(회장 고용수)가 협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주 1회 이상 방문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교육을 최대 8회까지 제공한다. 진로상담과 치료(침·뜸·부항 등)는 물론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을

통해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토록 교육해 건강상태 개선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통해 발달·뇌병변 재가장애인 200가구에 안심시스템 설치를 지원했다. 또 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출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대 15일까지 단기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긴급돌봄주택을 운영, 올해 13명(49일)이 이용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주택도 운영, 시설외 소수 입소대기 장애인 중 자립요구가 강한 이들에게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택 7호 중 6호에 입주자를 마쳤다. 올해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해 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자립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교육청 도서관·박물관 25일부터 부분 개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공공도서관 및 제주교육박물관의 임시 휴관을 종료, 부분적 개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서관과 한수폴도서관, 동북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은 25일부터 지 않음 뿐더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방 의무가 있는 교육청은 뒷집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밥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가 늦어졌다. 6월 중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이어 오는 7월 14일부터는 공공도서관 열람실(좌석 50% 이하)이 추

및 행사가 재개된다. 교육박물관도 20인 이하 참여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각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는 이용자 발열 검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마친 상태이며, 투명칸막이 설치, 간막이 없는 열람석 가림막 보강,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준비도 마무리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축
CONGRATULATIONS

합격

토목구조기술사

김우석
부: 김인홍(前 조천중 교장)
모: 황영희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

축
CONGRATULATIONS

합격

토목구조기술사

김우석
장인: 김수중(농무른영어조합법인)
장모: 정옥희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가족 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부이사관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김현숙
(부: 김창진·모: 이재인)

부이사관(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만계공계문중회
회장 김창보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임

중문농협 상임이사

김원범

중문농협 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산김씨갑선악파명헌공계중친회
중친회원 일동